

박택수/김소연선교사 기도편지

2025. 08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열대우림 기후인 말레이시아의 더운 날씨에 다 적응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2025년 한국의 여름은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더 습하고 더워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네요. 동역자 여러분들은 이런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도하기는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 잃지 않고 순적하게 이번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16년 만의 안식년

우리는 2009년에 첫 안식년을 보냈고 그 후 여러 사정들로 인해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2025년에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 년 12달 여름만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살며 2009년 이후 제대로 된 사계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래 만에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경험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정말 행복한 2025년 봄을 보냈습니다. 16년 만에 보는 한국의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 여성경 전문강사 과정

안식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성경 전문강사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긴 시간과 많은 공부와 암기 양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한 구역 12주와 신약 12주의 과정 중에 구역 두 과와 신약 두 과를 실제 강의해야 하는 과정으로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난 지금은 이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른답니다. 이번 과정을 여성경 고양스쿨 주간 17기 과정을 졸업했는데 강의해 주신 강사님들의 놀라운 성경 지식과 강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함께 과정을 공부했던 동기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어떤 사역들을 위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건 여성경전문강사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잠시 말레이시아에..

지금 안식년 기간이지만 한 달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과 말레이시아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양육하던 MBB 린형제는 여전히 사귀던 자매와 헤어진 이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매와 헤어진 이후 베트남에서 온 자매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불법 체류자로 이민국에 잡혀 감옥에 갔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린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가족은

지난해 5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예지는 한국에 온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의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예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예인이는 방학을 맞아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해야 하고 공과대학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2학기에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 낯선 사람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생 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룸 메이트를 만날 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종자들을 돌보고 사역자수련회 등 몇 가지 일들로 박택수선교사 혼자서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2. 지난 1월 6일 시작한 7개월 과정 여성경 전문강사 과정을 7월 19일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3. 안식년 전반부를 여성경 전문강사과정으로 보내고 이제 안식년 후반부가 되었는데 다음 텀을 위한 귀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4. 한국에서 여러 교회에 다니며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변화되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되도록
5. 우리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시간에도 주께서 말레이시아 땅에서 말레이 무슬림들 날마다 구원해 주시도록
6. 무더운 날씨에 가족들 모두 건강 잃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7. 주께서 딸 예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대학교 1학년인 아들 예인이가 한국어로 공부하고 또한 공과대학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